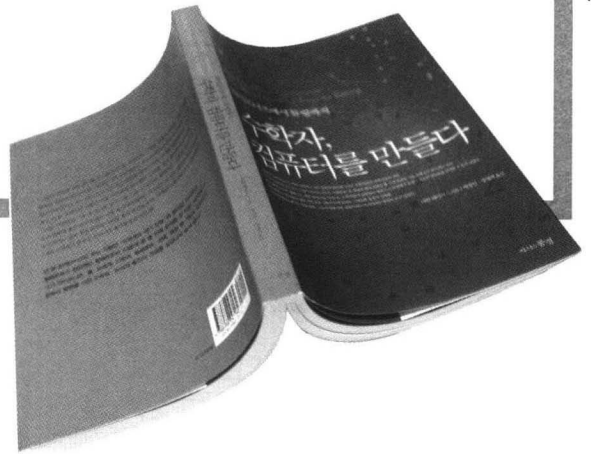


수학의 재미, 논리의 재미

지식의풍경 정미은_편집장



《수학자, 컴퓨터를 만든다》

마틴 데이비스 지음 | 박정일·장영태 옮김 | 368쪽 | 값 13,000원

《수학자, 컴퓨터를 만든다》는 공이 많이 들어간 책이다. 출판사에서 책을 펴낼 때 공이 들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나마는, 이 책은 참 공이 많이 들어갔다.

물리적 시간만으로 따져 보면, 초고를 받고 완성된 원고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2년에 가까웠다. 본문을 완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자면, 원문을 꼼꼼히 대조하고, 우리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대가들의 생애와 이론적 성과를 정리하는 등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쉽게 읽히는 책을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리멸렬하게 느낄 수도 있는 그 긴 시간을 그다지 지루하지 않게(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보낼 수 있었고, 우리는 오히려 일종의 자부심과 사명감 같은 기분에 취해 작업할 수 있었다. 편집자라면 누구나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는 좋은 저자와 좋은 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저자를 사랑해야겠다.

라이프니츠, 프레게, 칸토어, 힐베르트, 괴델, 튜링 등등 수학자이면서 논리학자였던 이들(물론 이들의 이름만으로도 두 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지만)이 이론 수학적 성과가 컴퓨터를 만들었다면? 한편으로는 골치 아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쾌감을 가져다 주는 논리 문제들이 엮여 한 편의 소설 같은 작품이 된다면? 게다가 멀게만 느껴지는 수학자들의 삶과 도드라진 성격이 진솔하게 담겨 바로 이웃 아저씨들(유감스럽게도 모두 남자다)의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또 다른 재미까지 있다면?

저자 마틴 데이비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식계와 일반 독자들 사이의 거리가 꽤 큰 우리의 현실에 비춰보면 너무도

부럽게, 대중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그 얘기를 풀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 책은 미국 내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얻었다.) 그런데, 모든 번역서가 다 그렇겠지만, 아무리 원서가 훌륭해도 그 원어를 우리말로 잘 옮겨주는 이가 없다면 우리에게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역시 역자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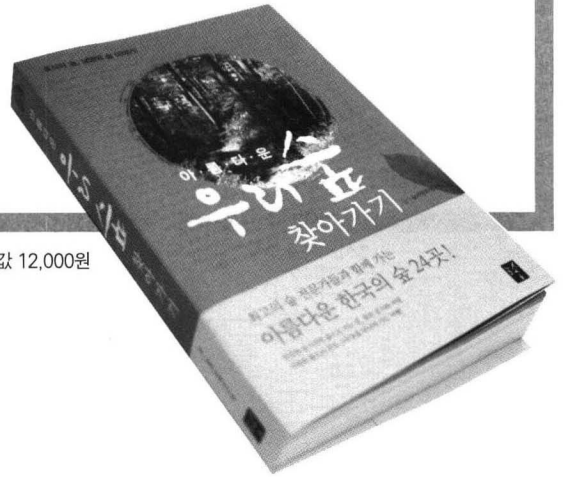
우리는 운 좋게도 좋은 역자를 만났다. 수학과 논리학에 조예가 깊을 뿐 아니라 논리학을 하는 연구자답게 문장 하나하나를 예사롭게 넘기지 않으며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번역문을 찾기 위해 열성을 다하는 역자를 만난 것이다.(생각해보면 이는 역자의 성격과도 관련 있지만, 원서의 질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역자는 이 책을 매우 흡족해했다.)

이런 《수학자, 컴퓨터를 만든다》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책이다. 누구에게든 ‘우리가 낸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을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서가 꼭 잘 팔리는 것은 아니라는 시쳇말이 이 책에도 현실이 될 줄이야! 판매는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럼 잘 팔리게 될 때는 언제? 모를 일이다. 판매가 부진한 여러 양서들처럼 그냥 묻혀버릴지, 아니면 진가가 확인되게 될지... 하지만 기다린다. 《수학자, 컴퓨터를 만든다》가 기대를 버리지 못하게 한다. **◆◆**

알기, 찾아가기, 그리고 만들기!

도솔 권대웅_시인, 기획편집 주간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 숲과문화연구회 지음 | 396쪽 | 값 12,000원



《아름다운 우리 숲 찾아가기》는 한국의 숲을 지켜오고 앞으로도 지켜갈 숲 전문가들이 십 년 동안 숲을 탐구하고 기록해 온 그야말로 십 년 대장정 숲의 보고서다. 그렇다고 산림연구자들만 읽어야 할 전문적인 숲의 생태나 환경만을 기록한 책은 전혀 아니다. 이 책을 쓴 저자들의 모임인 '숲과문화연구회'의 모토가 아름다운 우리 숲을 알려서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듯 이 책 역시 집필 단계부터 독자들에게 한국의 숲만이 지닌 청정함과 절개와 자태, 그리고 향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에 수록된 아름다운 우리 숲은 모두 24곳이다. 이 세상 그 어느 숲인들 아름답지 않겠느냐마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러면서 보존해야 할 숲들을 먼저 선보인 책이라 할 수 있다. 24곳의 숲을 휴식의 숲, 생명의 숲, 영혼의 숲, 희망의 숲 등 4부로 나눴다. 사람들에게 바다와 섬으로만 알려진 안면도의 5백 년 전통 솔 숲부터 시작해서 도토리나무가 비 오듯 떨어지는 청계산 숲, 산삼의 기운이 느껴지는 가리왕산 숲, 천 년 전 신선이 거닐던 오봉산 숲, 흰 양의 전설이 깃든 백양사 숲, 윤선도를 만날 것만 같은 보길도 숲 등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중요한 숲 24곳이 소개된다.

24곳 숲들의 심장부를 알리기에 이 책의 400페이지 분량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 이 책을 읽고 숲을 찾아가서 그 숲의 향기로운 숨소리를 느끼고 알기에는 너무도 충분할 것이다.

전투에 장수 한두 명씩을 앞장세워 내놓듯이 각 출판사마다 울려넘 시장의 시늬에 맞춰 수많은 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숲이 있고 자연이 있지만 여름 시즌만의 책이 아니다. 겨울에야 제 맛을 내는 계방산 숲 이야기가 있고 봄에 읽으면 더 아름다운 백양사 숲 이야기가 있는 이 책은 사계절용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산 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숲의 고요함처럼 그렇게 숙연히, 오래, 은은한 향기로 알려지면 좋겠다. 찾아갔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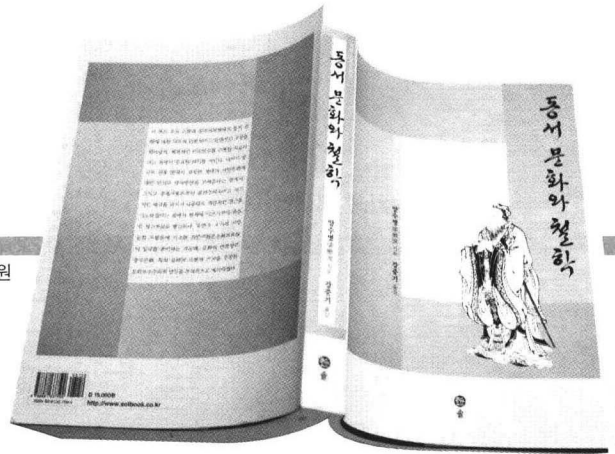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혼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낸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을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15만여 평 규모의 숲 '헬로 우드'를 조성, 시민에게 개방하고 그 운영은 숲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다. 또한 도카치마이니치 신문사는 신문이 종이를 사용하고 종이는 나무에서 나오기에, 사용한 종이 양만큼의 숲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되돌려주자는 취지에서 120만여 평 규모의 '천년의 숲'을 만들었다.

이 책을 만들면서 나는 문득 해마다 수많은 책들을 만들어 내는 우리나라 출판사 대표들이 떠올랐다. 삼삼오오 어디선가 모여 책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들, 골프를 치든, 술을 마시든, 해외여행을 가든, 혹은 책을 많이 팔아 땅을 사들이고 자사의 건물만을 세우는 데 급급하던, 어쨌든 아무튼, 그 출판사 대표들이 파주출판단지 어디쯤이나 홍대 부근 어디쯤에 천여 평, 아니 백여 평이라도 숲 하나쯤 만들어보는 생각은 하지 않을까 하는... **도솔**

서양문명 익숙한 내게 ‘아찔하게’ 다가오다

솔 이경민_편집부

《동서 문화와 철학》 양수명 지음 | 강중기 옮김 | 480쪽 | 값 15,000원



오래된 원고였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원고와 초교작업까진 끝냈지만 그 이후의 진행이 되질 않았다고 들었다. 다음 진행 아이টে으로 잡고 천천히 검토를 시작했다. 그리고 검토를 마친 뒤에는 정신이 아찔했다.

《동서 문화와 철학》은 중국 현대신유학(現代新儒學)의 선구자 양수명(梁漱溟)이 지은 철학서다. 양수명은 중국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1919년 5·4운동을 지나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양문명으로 어지러워진 중국을 지켜보면서, 동양인으로서 서양문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의 동양문명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이 책을 썼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당시의 서양세계를 풍미하던 철학과 철학자뿐만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서양 역사를 훑어나가면서 그 당시 서양정신의 핵심이라고 알려진 ‘과학’과 ‘민주주의’의 근원을 파헤치고, 다른 한편으로 동양문명의 큰 줄기라 할 수 있는 인도와 중국의 철학과 분석을 통해 동서양의 철학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짚어나간다.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를 유명인으로 만들었으며, 현재에도 중국 대학생의 필독서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의 고전이다. 그러니 정신이 아찔할밖에. 내가 과연 이런 책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래도 편집자이고 내가 담당할 책이니 열심히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원고를 잡기 시작했다. 당시 역사들을 다룬 책들을 읽었고,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찾아보았다. 그리고 원서를 대조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원고를 읽어나갔다.

어릴 때부터 서양에 관한 저작들을 공부했고, 이후에 불교에 심취했으며, 유교에도 정통한 학자였던 양수명이 스물아홉의 나이에 지은 이 책은 분명 초보적인 이분법과 거친 개괄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고민과 유

학과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 특히 유학(儒學)(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천해 온 유학이 아닌 공자(孔子) 자신이 말한 것들에 중심을 둔)이 생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현재를 위한 마음가짐을 위한 철학이라는 참신한 해석들은 그간 내게 동양철학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었다. 또한 중국 근·현대 철학을 다룬 책들이 국내에 전무하다시피 한 현 출판시장에서 각별한 의의를 갖는 책을 만들고 있다는 기쁨이 뒤따랐다.

무엇보다 서양문명의 세례를 받고 자라왔고, 지금도 그런 문화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아시아인으로서, 동양문명을 어떻게 내 안에서 잘 기능할 수 있을지, 동서양의 문화 융합과 충돌을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답할 만한, 지금도 유효한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가 빛난다고 할 수 있다. 학술서인 데다 쉽게 읽히지만은 앎을 책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주제를 가진 이 책은, 그런 점에서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고마운 책이기도 하다. **솔**

여자들의 편지, 가슴 아리게 하는 그 섬세함에 대하여

이미지박스 김혜정_편집장

《편지 쓰는 여자》 올라 케넌 편저 | 정지인 옮김 | 404쪽 | 값 13,000원



“남성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오랜 사색을 통해 간신히 찾아내는 문구와 표현들을 여성들은 그저 자신의 펜 끝에서 발견한다. 여성은 단 하나의 낱말로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다.”

전화와 핸드폰이 난무하는 시대다. 글이 아닌 ‘말’의 시대다. 그런데 편지라니. 그것도 케케묵은, 시대조차도 쉽게 가늠이 힘겨운 2차 세계대전 전의 편지라니... 적어도 신세대라는 지칭이 어울릴 만한 연령이라면 구닥다리 취급을 할 것이 분명하다.

소설도, 수필도 아닌, 편지가 과연 문학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까. 시답잖은, 아니 유명한 작가의 편지라 해도 그렇다. 문학이라고 하기엔 솔직히 거창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자들은 《편지 쓰는 여자》를 통해 편지가 문학이니 아니니 논쟁하는 것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배짱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명백한 것은 있다. 소설을 쓰기 훨씬 오래 전부터 인류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정서와 사상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엄숙하고 진지한 문학작품보다 편지는 생생하고 아름다운 문학작품인 것이다.

이 책을 결정 짓는 가장 큰 애깃거리는 ‘여자’다.

제목이 ‘편지 쓰는 남자’ 였으면 어땠을까. 웬지 어울리지 않는다. 혹자는 역발상이라며 시선을 한 번 더 주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금성에서 온 여자들이 화성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남성들에 대해 극히 “단세포적인 뇌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단언하고야 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지지리도 편지를 못 쓰는 남자들”이라고 여기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편지 쓰는 여자’다. 여자들의 편지, 어딘지 모르게 가슴이 아려온다.

분량에서부터 압박감을 과시했던 이 원고는 번역까지 완

료된 채 출간을 엄두조차 못 내고 전임자의 손에서 고스란히 넘어 온 적잖은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 내용은 훌륭한데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 편집자들과 여러 번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묵직하고 두꺼운 양장의 느낌을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가벼운 비소설류로 만들기로 결정, ‘가볍게’ 작전에 들어갔다. 독자들의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싶다는 편집자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고에 고스란히 꽂혀 먼지 속에 사라지기엔 너무나 주옥같은 여성의 편지, 여성의 목소리, 그리고 여성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고전에 고전을 거듭하여 책을 손에 쥐었을 때, ‘가볍게’ 작전에 실패했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이 책은 가벼운 책이 될 수가 없다. 한땀 한땀 또박또박 수놓듯 빼곡히 써내려간 편지들은 가슴 저 밑바닥을 아리게 하기에 충분한 묵직함이었다. 800년 시공을 유영하는 그녀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이 고동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대 역사의 전면에서 설 수는 없었지만 자신만의 언어로 섬세한 역사를 직조한, 여성들이 세상을 향해 띄워 보낸 파랑새였기 때문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문득 여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면, 그리고 누구라도 편지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때 잠시 거들떠보고, 거기서 한 문장만이라도 소중히 베껴본다면, 《편지 쓰는 여자》가 세상으로 나온 것에 대한 소박한 축배가 되지 않을까. ☺